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6호 【루계 제26000호】 주체107(2018)년 5월 6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김정은동지께
##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당신이 내가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 수상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친절한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를 계속 강화해나갈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바입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2018년 4월 30일 아바나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에 게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쿠웨이트 타임스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4월 8일에 진행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로씨야 아르똠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4월 10일에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태양절과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출판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9일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 예로페이-메웨가 보도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인 5.1절에 즈음하여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4월 27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 스위스조직위원회 결성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결성식이 4월 21일 바젤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가 선출되였다.

또한 조직위원회결성과 관련한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 김정일각하의 탄생 80돐, 김정은각하께서 조선의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10돐이 되는 2022년에 평양과 백두산지구에서 진행되는 제6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결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스위스조직위원회가 국제조직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희세의 천출위인들을 칭송하며 조선인민의 조국통일투쟁에 련대성을 보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공화국창건 70돐을 맞는 올해에 경제건설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 4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4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철도성에서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성적인 4월 화물수송계획을 100.3%로 수행하였다.

철도성 정치국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물동을 더 빨리 실어나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짜고들었다.

성일군들은 련관부문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중요화물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특히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하여 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이고 화차의 회귀일수를 최대한 줄이는 사업에 불을 걸었다.

성참모부의 작전에 따라 각 철도국과 분국, 대와 역들에 내려간 성일군들은 역별, 구간별 화차운용상태와 물동확보정형,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신속히 대책을 세워나갔다.

서평양기관차대, 정주기관차대, 평양기관차대, 개천기관차대를 비롯한 철도화물수송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기관차부문의 수송전사들은 자검자수를 강화하고 수리정비시간을 단축하며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객화차부문에서도 화차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평양조차장객화차대와 북창객화차대, 원산청년객화차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화차들을 지체없이 목적지에로 떠나보내는 모범을 보이였다.

역부문의 수송전사들은 접근렬차들의 편성상태와 기술상태를 환히 꿰뚫고 렬차가 도착하면 신속한 차풀이와 차무이로 머무름시간을 극력 줄이였다.

렬차승무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증송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을 활발히 벌려 계획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 림업성에서

림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4월 통나무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림업성의 일군들은 각지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에서 겨울철기간 산지토장에 쌓아놓은 통나무들을 역토장을 비롯한 해당 장소들에 원만히 수송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자강도림업관리국아래 장계, 희천, 고인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할 드높은 열의밑에 공무기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륜전기재들에 대한 이동수리에 힘을 넣어 매일 높은 수송실적을 기록하였다. 성간, 화평, 자성림산사업소들과 삼탄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통나무상차와 하차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도로관리를 잘하여 통나무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혁신의 불길은 함경남도림업관리국아래 여러 사업소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도안림산사업소에서는 대용연료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운전사들의 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4월에 상반년 동발나무생산계획을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장진림산사업소, 홍원, 신흥갱목생산사업소, 단천산림개조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아래 여러 사업소들에서도 생산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맡겨진 4월 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림업관리국아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 산림개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통나무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륜전기재수리에 필요한 많은 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고 대용연료로 운재차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마감나르기에 박차를 가하였다.

량강도와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유평, 갑산, 안변, 회양림산사업소와 연암, 천내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운재차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힘을 넣으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전투를 벌리였다.

계획수행기간 림업성과 각 도림업관리국당조직들에서는 각지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진수와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도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산판마다에서 공격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하였다.

본사기자 정경철

###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순천의 전력생산자들이 높아진 4월 전력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 기세로 이달에 들어와서도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는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이들은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주자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이와 함께 자력갱생기지와 공무기지들에서 설비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앞세워 보장하는 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기본생산단위들이 새로운 위훈창조로 벅적 끓어번지였다. 열생산직장 전력생산자들은 기세를 부쩍 올리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이곳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대형송풍기와 배풍기의 진동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을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는 송풍설비와 배풍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타빈직장의 전력생산자들은 비상한 책임감을 지니고 각종 뽐프들의 진동과 소음상태 등을 세심히 관찰하며 나타날수 있는 이상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여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게 하였다. 운탄직장에서는 전동기단상보호장치를 받아들인데 이어 벨트콘베아들에 대한 관리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석탄이 보이라계통에 가닿게 하였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현실에서 은을 내는 전동기단상보호장치를 급탄계통에 확대도입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설비들에 무리가 생기지 않게 하였다.

화학직장과 전기타빈보수직장, 자력갱생직장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타올랐다.

화학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가치있는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시약소비를 훨씬 줄이였다. 전기타빈보수직장 로동자들은 뜻밖의 일로 급수계통의 전동기를 한시바삐 수리해야 할 긴급과제가 제기되자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 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였다.

자력갱생직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용접봉심선생산을 위한 절단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생산성을 높이였다. 또한 주강품과 안불임생산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결과 발전소에서는 조업이래 월 전력생산계획수행에서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대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릴 한마음으로 가슴불태우며 전력증산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특파기자 오철훈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 금속공장들에 많은 파철을 보내주었다
###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경제건설대진군에 떨쳐나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금속공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지난 4월에만도 각 도들과 수십개에 달하는 성, 중앙기관들이 파철집중수송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강원도, 량강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4월 파철모으기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이곳 도들에서는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각 시, 군들에 나가 파철원천을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강원도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여러가지 형식의 정치사업은 강철전선지원사업에 떨쳐나선 대중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원산시, 천내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맡겨진 계획을 20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였다. 삼지연군에서는 일군들이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172%의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평안남도, 함경남도, 평양시, 황해남도, 함경북도, 남포시, 황해북도에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철전선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들이였다.

장연군, 재령군, 회령시, 무령군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파철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지난 4월에 맡겨진 파철모으기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황해북도에서는 서흥군, 상원군, 신계군에서 상반년 파철모으기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신계군광정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뜻깊은 4월에 년간계획을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금속공장들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어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세게 다지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애국사업에 성, 중앙기관 일군들도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4월에 수십개의 성, 중앙기관들에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대한 파철집중수송에 참가하여 강선로동계급의 철강재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금속공장들에 대한 지원열기가 날로 높아가는데 맞게 철도운수부문 수송전사들은 두줄기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금속공장들에 파철집중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함흥철도국, 평양철도국, 청진철도국 수송전사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속에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려 4월 맡겨진 파철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개천철도국 수송전사들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줄 긴장한 물동수송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수송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어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다.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켜 강철전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 주체비료생산에서 련일 혁신
###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주체비료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굴지의 화학공업기지에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 4월에는 비료생산을 위한 가스생산량이 훨씬 늘어났다. 그런 속에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그 나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사업을 들이대여 온 일터가 비료증산투쟁으로 들끓게 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을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며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그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어 증산투쟁에 활력을 부어주었다.

이와 함께 련합기업소에서는 같은 원료를 가지고도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여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였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만장약한 공무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건조공정에 채형콘베아를 제작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박력있게 전개하였다.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이들과 숨결을 같이하며 제작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고무해주며 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게 하였다.

실천속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끝내 새형의 채형콘베아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채형콘베아의 제작도입으로 봉탄건조과정에 나오는 수백t의 가루탄을 후민산공정에 보내주어 많은 가성소다를 절약하면서도 비료생산을 부쩍 끌어올릴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이들은 또한 지난 시기 엄두도 못내던 대형배풍기의 회전원판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할 목표를 내세우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회전원판을 짧은 기간에 제작하여 증기생산공정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킬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일떠서 결사관철하는것을 체질화한 남흥의 로동계급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발휘하며 비료산을 더 높이 쌓기 위해 헌신분투하였다.

앞공정을 지켜선 선탄직장의 로동자들은 공무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예비부속품들을 갖추어놓고 부족되는것은 자체로 마련하며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하여 직장에서는 석탄이 들어오는족족 부리고 선별한 원료를 원만히 대줄수 있었다.

성형직장의 로동자들은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그 어느때보다 책임적으로 하면서 질좋은 봉탄을 생산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들은 설비들의 진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발견한 불량개소들을 자기 교대에 퇴치하고서야 다음 교대에 넘겨주는 집단주의기풍을 발휘하였다.

련합기업소적인 작전에 따라 가스생산과정에 생기는 재를 증기생산공정의 연료로 리용하는 체계가 세워져 이 공정에 요구되는 연료소비를 극력 줄였다.

이를 위해 발생로직장에서는 벨트콘베아들의 정상가동에 모를 박고 설비관리를 알심있게 하여 재처리를 제때에 해나갔다. 또한 설비에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제때에 대책을 세웠으며 조작공, 운전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가스발생로들에 만부하를 걸었다.

결과 올해에 들어와 매달 시간당 가스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높임으로써 지난 4월에는 제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그대로 주체비료생산량을 부쩍 높이는데로 이어졌다.

암모니아직장의 로동자들은 9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자력갱생대진군의 발걸음소리를 높이 울렸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혁신적인 안목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벌리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편 직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하여 누구나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암모니아생산량을 훨씬 높이였다.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이 높이 떨쳐지는 속에 비료산이 높이 쌓이고있다.

남흥의 로동계급은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열의안고 사회주의협동벌들에 펼쳐질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며 주체비료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 과학기술을 앞세워 비약의 한길로

백두의 봄우뢰마냥 온 나라를 진감한 장엄한 선언,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이 날이 갈수록 천만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위대한 승리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에 넘쳐 경제건설대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 시각,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당의 부름따라 과학기술을 앞세워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어갈 철석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은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중시, 이것은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로선이며 만능의 보검이다.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를 모르고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안아온 주체조선의 눈부신 성과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정녕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현실이 이 땅에 펼쳐졌던가.

세계를 뒤흔들며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된 세기적인 기적들과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인민사랑의 기념비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꾸려진 현대화된 공장들과 황금해의 새 력사를 안아온 흐뭇한 물고기대풍…

생각만 해도 가슴은 격정으로 부풀고 소중한 추억은 더 큰 승리에로 우리를 떠밀고있다.

지금도 못 잊을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삼삼히 안겨온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조선혁명이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강화될수 있은 비결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온데 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되새길수록 과학기술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고 승리의 년륜을 아로새겨온 성스러운 력사의 갈피갈피가 감회깊이 어려여온다.

해방후 빈터우에서 출발한 우리의 과학기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사회건설의 첫날부터 과학기술의 발전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성쇠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였다.

지식인들을 로동자, 농민과 함께 우리 혁명의 기본동력으로 내세우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더없이 귀중한 나라의 보배로 여기시며 사랑의 한품에 안아 과학탐구의 길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몸소 과학원을 창립하시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발전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여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과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우리 인민이 전후 잿더미를 헤치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은것도 일찌기 과학기술발전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중대사로 여기시며 이 사업을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이런 투철한 신념으로 현대적인 대형용광로를 일떠세우고 비날론공업을 창설하며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내던 력사의 그 나날들에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애국의 열정이 또 얼마나 뜨겁게 아로새겨졌던가.

정녕 사무치게 안겨온다.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 과학기술중시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이.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부를 때면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우리 식의 CNC화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천만로고가 가슴뜨겁게 어려와 눈굽을 적시군 한다.

몸소 첨단돌파전의 선구자, 개척자가 되시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첫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르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는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였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시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확고히 보장할수 없다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곧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며 과학기술을 홀시하는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것과 같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전략적기치로 휘날리고있다.

과학기술은 사회발전을 주도해나가는 기관차이라고 하시면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열풍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새 세기 전민학습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가는 곳마다에 꾸려진 과학연구기지들과 과학기술보급실들에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가 뜨겁게 응축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드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하기에 이 땅에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이 응축된 시대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여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로 흥성번영하는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일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천만의 심장에 억세게 새겨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교육사업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의 령마루에로 비약해나갈수 있는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던것이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고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전략적로선의 승리를 확신하시였다.

령도자가 백을 울리면 천만군민이 떨쳐나 강산을 울리는것이 바로 주체조선의 기질이고 본때이며 투쟁방식이다.

영광의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혁명의 폭풍우를 승리적으로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친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자!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기세는 이처럼 충천하다.

본사기자 김 일 권

---

# 우리 식이 제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됩니다.》**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하게 될 한 대상의 설계도면을 보아주시던 때의 일이다.

도면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가볍게 수긍도 하시고 부족점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면의 한 부분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건물의 바닥을 설계한 부분이였다.

도면을 설명해드리던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이 부분에는 쪽무이널바닥을 하려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조석미장을 하자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세계적으로 고급건물들에 쪽무이널바닥을 하는것이 례상사로 되여왔던것만큼 도면을 설계하면서 일군들은 이 건물의 바닥도 응당 쪽무이널로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런 일군들의 생각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쪽무이널은 어디까지나 서양식이라고 하시면서 건물의 바닥은 우리 나라에 많은 돌로 우리 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들이 쪽무이널바닥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는가, 이 건물의 바닥은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해야 하며 그러자면 우리가 좋아하는 갖가지 아름다운 문양을 넣어서 우리 나라에 흔한 돌을 가지고 인조석미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선행한 건축리론이나 건축물창조경험이 어떻든지간에 우리가 창조하는 건축물은 철저히 우리 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가 가슴에 뜨겁게 파고들어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물의 바닥에 대리석을 깔아볼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보다 옥돌로 인조석미장을 하는것이 더 좋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옥돌로 하자고 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설계도면의 여기저기를 손수 짚어가시면서 어디에는 무슨 꽃문양을 넣고 또 어디에는 어떤 색갈을 넣으라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공사를 진척시키였다.

인조석으로 바닥을 장식하니 쪽무이널바닥과는 대비도 되지 않게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다.

우리 인민들의 감정과 정서, 시대적미감에 맞게 그리고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아름다운 문양을 넣어 시공한 건물의 바닥은 우아한 예술작품을 방불케 하였다.

참으로 우리 식으로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은 우리 식 건축의 보다 높은 예술적경지를 개척하였던것이다.

얼마후 바닥공사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공사현장을 찾으시였다.

건물안에 들어서시여 이윽토록 인조석바닥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돌로 우리 감정에 맞는 문양을 넣어서 시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우리 식이 제일입니다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다시금 철리로 새겨안았다.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열렬한 애국심, 바로 여기에 위대한 창조의 원천이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정 순 화

---

# 김영남동지가

##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라말라흐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각하**

나는 팔레스티나국민리사회 제23차회의에서 당신이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하고 자기의 모든 정당한 민족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와 련대성을 다시한번 확언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5월 5일　평 양

---

##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

회령시 대덕리당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당세포의 역할을 높여 일심단결의 성새를 굳건히 다져나가고있다.

리당일군들은 당세포들에 내려가 세포위원장들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들이 사람과의 사업에 힘을 넣도록 적극 도와주고있다.

또한 세포위원장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그들의 교양자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세포위원장의 날에 군중과의 사업방법, 농장원대중을 발동하는 방법, 당세포의 핵심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 등 그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 당세포위원장들의 경험발표회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당세포위원장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결과 당세포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다.

로동통신원 박 희 옥

---

# 어버이사랑은 녀성들의 옷차림에도

옷차림과 몸단장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와 문화생활수준의 반영이다.

우리 인민들이 옷차림과 몸단장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고상하고 문명하게 해나가도록 언제나 깊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녀성들의 옷차림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며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옷차림을 개명하여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고상한 풍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하게 피여나던 수십년전 어느해 봄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창밖으로 수도시민들 특히 우리 녀성들의 봄철 옷차림새를 눈여겨보시였다.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녀성일군을 부르시였다.

그 녀성일군의 차림새는 그리 밝지 못하였다.

그와 인사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도 녀성이고 평양시민인데 동무부터 봄철에 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오늘 동무와 만난 기회에 우리 인민들의 옷차림문제, 녀성들의 옷차림을 더 밝고 화려하게 갖춰주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하시였다.

순간 그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옷차림을 수수하게 하고 다녀야 마치도 생활을 검박하게 하고 또 그래야 혁명성이 있는것처럼 생각하면서 차림새에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러한 그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옷차림을 잘 갖추는것은 그 사람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로 되며 그 사회의 문명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된다고, 특히 녀성들의 옷차림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추억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두산시절에도 유격대원들의 옷차림에 대하여 여간 마음쓰시지 않으시였다, 특히 녀대원들의 군복에 대해서는 각별하시였다. 해방직후와 어려운 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기간 언제 한번 녀성들의 옷차림에 대하여 깊이 관심하시지 않은 때가 없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복받은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는 일군의 가슴은 후덥게 젖어들었다.

나라없던 지난날 천대와 멸시속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온 이 나라의 녀인들을 하나같이 잘 입혀 환하게 내세워주시려고 그리도 마음써오신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을 천만부모의 사랑엔들 비길수 있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어 우리 녀성들을 보란듯이 아름답게 가꾸어 내세워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녀성들은 부모생각, 아이들생각으로 자기들은 옷을 잘 해입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더 많은 천과 옷을 생산하여 녀성들이 자기들의 옷차림에서 변혁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요즘 처녀들의 조선옷차림이 어떤가고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봄계절에도 맞고 단정한것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라고 일군은 말씀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말을 긍정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녀성민족옷가운데서 아마 우리 나라 녀성들의 치마저고리를 따를만 한 옷이 없을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생각되는것은 우리 녀성들이 조선옷을 입을 때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색으로만 입지 말고 서로 다른 색갈로 조화를 맞추어 입어도 좋겠다는것이다. 그리고 조선옷의 기본특성을 살리면서도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를 더 탐구하고 세련시켜 우리 민족옷의 우월성을 잘 발양시키는데도 머리를 써야 할것이다. …

이날 그이께서는 조선옷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아름답고 화려한 녀성옷들을 많이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기술과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발동시키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조직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해당 부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녀성들의 옷차림을 더 밝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옷전시회와 녀성옷현상모집사업, 텔레비존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통한 소개사업, 근로단체조직들과 인민반들에서 진행된 녀성들의 옷차림과 관련한 해설선전사업…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의 사랑속에 우리 녀성들의 옷차림은 조선녀성들의 고상한 풍격을 살리면서도 한결 밝아지고 아름다와지게 되였으며 거리와 마을은 더더욱 환해지게 되였다.

정녕 우리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은 사회주의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은혜로운 빛발이였다.

본사기자 채 히 성

---

###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 청춘광산으로 전변되기까지

### 한 희 락

룡양광산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텔레비존소설 《백금산》을 생각하며 7호굴착기와 영웅소대원들부터 떠올리군 한다.

바람세찬 산정에서 온갖 눈비를 다 맞으며 쉴새없이 광석을 퍼올리는 소대원들과 굴착기의 작업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옛말이다. 그렇듯 우리 룡양이 그전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였다.

그 모습을 대할 때마다 이 땅에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이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군 한다.

주체100(2011)년 10월 15일이였다.

이날 대흥청년영웅광산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그길로 우리 룡양광산도 찾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향한 혁명적대진군을 진두지휘하시며 조국땅 방방곡곡을 주름잡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광산에 모시게 된 나는 높뛰는 가슴을 애써 눅잦히며 종합지령실에 들어서시는 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올렸다.

우리들이 올리는 인사를 반갑게 받아주시고 지령실안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지령원들이 산업TV화면에 펼쳐진 지하의 여러 채굴장들과 선광직장, 상차대를 비롯한 갱막장과 지상의 모든 생산현장들을 보며 지휘를 하고있는 종합지령실은 채굴과 락광, 파쇄, 선광처리와 같은 거창한 광산의 생산활동을 지휘하는 현장지령실이라기보다는 마치 아늑한 도서관의 열람실을 연상케 했다.

이윽고 광산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경도앞에 진렬한 광석표본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였다.

이때 광산의 한 일군이 우리 광산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고 우리들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두해전 5월 석수떨어지는 막장에까지 들어오시여 채굴작업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과업을 다 관철하였다는것을 보고올리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며 말씀하시였다.

**《내가 2009년 5월에 룡양광산에서 개발한 6월5일갱막장에 들어가보고 다른 갱들도 6월5일갱처럼 채굴작업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다량채굴, 다량락광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전경도앞에 진렬한 생산물표본을 보니 전기용융크링카도 있는데 그동안 룡양광산에서 내가 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는것이 알린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계속하여 금산갱지구의 채굴공정도앞으로 다가서신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도입한 전면붕괴식채굴방법에 대하여서와 지난 1년반사이에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금산갱을 비롯한 여러 갱들에 대형채굴장을 4개 더 건설하여 채굴원가는 절반으로 낮추면서도 생산은 3.2배로 장성시키고 많은 광량을 확보한데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였다.

이미전에 6월5일갱을 돌아보시여 전면붕괴식채굴방법에 대하여 환히 알고계시던 장군님께서는 룡양광산에서 새로 받아들인 그 채굴방법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방법일것이라고 하시면서 광산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만한 광량이면 올해계획수준으로 볼 때 12년동안 생산할수 있는 량인데 광산로동계급이 큰일을 하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시고는 채굴작업의 대형화, 현대화의 우월성을 볼수 있게 그려놓은 직관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시고 광물생산이 2008년에 비하여 2009년에는 2.7배, 2010년에는 2.9배, 2011년에는 3.2배로 장성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룡양광산 로동계급이 거둔 성과에서 기본은 대형화된 채굴장을 꾸린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여 7.1갱의 생산공정을 부감하시였다.

생산지령실아래에 위치한 로천파쇄장에서는 파쇄기의 동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벨트콘베아로는 파쇄된 광석들이 저광사로 끊임없이 흘러들고있었다.

나는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는 대형자동차들을 가리켜드리며 저 차들이 6월5일갱과 청년갱 대형채굴장에서 생산한 광석을 나르는 광석운반차들이라고 자랑스럽게 보고올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장군님께서는 정말 장쾌하다고, 이 지구가 2~3년전만 하여도 폐허나 다름없었는데 광산로동계급이 품을 들여 잘 꾸려놓았다고 높이 치하해주시고 이렇게 물으시였다.

《이런 갱이 몇개요?》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대형화된 채굴장을 몇개 꾸렸는가에 대하여서도 료해하시고는 정말 좋다고, 잘하였다고 거듭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광부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광석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이를 우러르니 오늘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가 되새겨져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광산의 형편은 말이 아니였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을 겪고난 뒤였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광산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루빨리 고난의 후과를 가시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우리들이 계획하고 내밀고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때 우리들은 매장량이 풍부한 서항산2맥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과 북부광체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이 두가지 전망계획을 가지고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 노린 대상은 서항산2맥개발이였다.

그것은 서항산2맥개발이 로력이 많이 들고 공사량도 엄청났지만 지금껏 우리가 해온 개발방식이였고 또 서부맥락광정공사를 1년 8개월만에 해제낀 경험도 있었기때문이였다.

그와 반면에 북부광체개발은 보다 현대적인 채굴방법으로 계획하고있었으나 그때는 지금과 같은 대형채굴방법을 기술문헌에서나 보았을뿐 직접 해본 경험도 없었거니와 현대적인 설비들을 마련할 자금 또한 문제였다. 그러다나니 북부광체개발은 아직은 먼 앞날의 전망계획으로만 우리들의 머리속에 남아있었다.

이 모든것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북부광체개발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의 낡은 채굴방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채굴을 대형화, 현대화해야 한다고, 자신께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북부광체를 개발하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 즉석에서 귀중한 자금문제도 풀어주시고 수백명의 끌끌한 제대군인들을 보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는 광산에서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먼저 대형채굴장을 하나 본때있게 건설하라는 과업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기술문헌에서만 볼수 있었던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가 이 깊고깊은 굴안에서 제일먼저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북부광체에 대형채굴장을 시범적으로 꾸려놓고 대형굴착기와 대형자동차들이 갱막장에 직접 들어가 일을 해제끼니 바람세찬 산정에서 광석을 생산하던 룡양광산의 모습은 영화의 화면에서나 볼수 있게 되였다.

2년전 광산을 또다시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 석수떨어지는 갱막장까지 찾아주시고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한결같이 떨쳐나 일을 많이 하였다고, 이렇게 갱안에서 대형자동차들이 엇바꾸어 드나들면서 광석을 실어나르게 되였으니 작업하기가 얼마나 편리하게 되였는가고 하시며 룡양광산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여났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현명한 가르치심과 정력적인 지도로 하여 오늘 우리 룡양광산은 지난날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가 실현된 광산으로, 광부들이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다루며 노래속에 일하는 청춘광산으로 새롭게 태어날수 있게 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양로동계급이 보자는것은 다 보겠다고 하시며 지령실에서 광산의 발전력사와 대형화, 현대화의 모습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을 보아주신데 이어 전면붕괴식채굴방법을 받아들인 금산갱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갱앞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안전모를 다 쓰라고 다심히 이르시면서 전동차에 오르시였다.

2년전 장군님을 6월5일갱에 모실 때에는 가슴이 졸아들어 두팔벌려 막아나섰던 우리들이였지만 오늘은 그때처럼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다.

그때 일이 너무도 가슴에 맺혀 갱안을 현대적으로 더 잘 꾸려놓았던것이다.

자동차운반갱도를 따라 전동차를 타고가시면서 갱건설정형에 대하여 료해하신 장군님께서는 이 갱이 그전에는 전차운반갱이였는데 여기에 대형채굴장을 꾸리기 위해 자동차운반갱을 건설하였으면 잘하였다고, 이 공사를 5달이상 걸려야 할수 있는것을 2달동안에 끝내고 갱안에 압축기도 들어다 설치하고 채굴설비들을 다 넣었으면 좋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갱을 이렇게 현대화하니 전차, 광차, 레루가 필요없게 되였습니다. 갱을 현대화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잠시후 갱안에 꾸린 감시초소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시의 네거리 교통보안원처럼 자동차운행을 지휘하는 감시대에 오르시여 사방에 뚫리여있는 곁가지굴들과 그 굴에서 광석을 실은 대형자동차들이 연방 락광정에 도착하여 자동하차하는 모습을 지켜보시였다.

지난날에는 좁은 전차운반갱이던것을 불과 2달동안에 대형채굴장으로 만들고 지하궁전처럼 현대적으로 꾸려놓았을뿐아니라 자행식채굴대차와 썰매식채굴대차, 자동삽차, 대형자동차와 압축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채굴 및 운반설비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고 광석생산을 통이 크게 해제끼는 이 경이적인 현실을 두고 장군님께서는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락광정의 깊이도 알아보시고 그밑에 있는 파쇄기의 성능과 파쇄된 광석이 벨트콘베아에 실려 저광사로 운반되는 공정, 작업중에 있는 현대적인 채굴대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렇듯 오랜 시간에 걸쳐 막장에서 전면붕괴식채굴방법에 의한 광석생산정형에 대하여 상세히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오시는 길에 그전에는 낡고 작은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발파하여 적은 량의 광석을 생산하였지만 지금은 채굴대차를 비롯한 대형채굴설비로 한번에 수백t씩 생산하고있다고 만족해하시면서 긍지높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룡양광산의 로동계급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채굴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하여 한해에 수십만t의 광석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는데 대단합니다. 룡양광산이 이제는 로동계급이 헐하게 일하는 청춘광산으로 전변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룡양광산에서 채굴작업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이제는 광석을 펑펑 생산할수 있게 되였는데 일을 많이 하였다고, 이 채굴방법은 정말 신선놀음이라고, 룡양광산 로동계급이 대형채굴에 재미를 붙였다고 하시며 정말 큰일을 하였다고 거듭거듭 치하해주시였다.

3면으로 계속

#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백승을 떨치며 힘차게 앞으로!

##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2년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은 장장 수십성상의 우리 당력사에서 너무도 짧은 기간이였지만 당의 강화발전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기였다.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서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더 깊이 간직된 이 열화같은 지향과 더불어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서의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은 백배로 강화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여 전당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된것은 당 제7차대회이후 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큰 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여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다지는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는데서 기본핵으로 된다고 밝혀주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전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투쟁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당의 유일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사리원시 구룡남새전문협동농장과 청진시 라남구역 룡암남새전문협동농장, 민들레학습장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전하는 혁명사적표식비와 현지지도표식비가 건립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를 백배해주었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전력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당조직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체득시켰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오직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곧바로 가는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진행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와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초급당조직들과 당세포들이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모든것을 여기에 지향시켜나가는 과정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당대렬의 순결성이 한층 강화되였다.

전당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과 지시, 당의 방침을 즉시접수, 즉시대책, 즉시집행, 즉시보고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칼날같은 기강이 확립된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섰는가 하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것을 당중앙의 권위를 견결히 옹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이 사업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나갔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대도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 평양중등학원과 평양가방공장건설, 평양무궤도전차공장개건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끝냄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였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내달리도록 첨입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여러개의 군민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지난해에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와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당이 맡겨준 새형의 화물자동차, 새형의 뜨락또르생산과제를 빛나게 수행할수 있은것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갈수 있은것도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데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든 이곳 당조직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난 2년간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오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길에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진리를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였다.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갈 충정의 맹세가 용암마냥 끓어번지고 전당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바로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필승불패의 담보가 있다.

지금 전당의 당조직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당 제7차대회에서 밝혀주신 당건설과 당활동의 고귀한 지침들을 틀어쥐고 당의 조직사상적강화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서의 당의 전투적위력이 백배해질수록 우리 혁명은 더욱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있은 후 지난 2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려 새로운 영웅신화들과 혁혁한 로력적위훈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하였다. 그 앞장에는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당정책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온 우리의 미더운 당일군들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진군나팔수가 되고 송풍기가 되자.

이것이 당일군들의 삶의 목표였고 좌우명이였다. 그들가운데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치를 들고 수도당위원회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온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개건현대화하기 위한 주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당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새긴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정치사업의 무대를 현장으로 옮기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첫번째 용사가 되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대중을 이끌어 기적을 창조하였다. 수도려객운수국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 평양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12개의 건물을 새로 건설하고 4개의 건물을 보수한것을 비롯하여 방대한 개건현대화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단위의 사업성과는 그 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의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당 제7차대회이후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앞에는 종전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섰다. 그런데 생산조건은 더 어려웠다. 이곳 당위원회들에서는 당이 제시한 석탄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모든 일군들이 화선에 나가 선구자적역할을 다해나가게 하는데서 찾았다.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안고 단위를 이끌어나가자. 이것은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자신에게 먼저 내린 돌격구령이였다.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물자들을 가지고 당당한 갱과 채탄중대, 굴진소대막장에 일제히 들어간 일군들은 로동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다. 동발나무가 필요할 때에는 남먼저 채벌지에 올라갔고 운반이 미처 따라서지 못할 때에는 탄차를 밀면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선동나팔수가 되기도 했다. 이에 고무된 이곳 로동자들은 석탄증산으로 당을 결사옹위하였다.

당에서 준 석탄생산목표를 수행하자면 이미 꾸려진 자력갱생기지들이 은이 나게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대중을 이끌어 련합기업소에 꾸려진 20여개의 자력갱생기지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함으로써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게 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장, 당정책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우리 식의 우렁이유기농법을 완성함으로써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게 한 염주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또 얼마나 훌륭한가.

모든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잇닿아있는 전투진지로 여기고 자기 단위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우리 당의 참된 지휘성원이 될 때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는 더욱 가속화될것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비롯한 전당적인 대회들을 소집하도록 해주시고 기층당조직강화를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신것은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과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를 비롯한 기층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정책적과업들을 직접 관철하는 집행단위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기본전투단위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은 모든 기층당조직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기본전투단위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고있다.

전당에 당세포를 중시하는 기풍이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 남포시당위원회, 백암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당세포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많은 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는 생물공학분원, 수학연구소, 집적회로연구소를 비롯하여 과학연구부문의 당세포위원장들이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1211호림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위원회들에서는 당정책관철을 위해 누가 알아주건말건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백옥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바쳐가는 당세포위원장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평가도 해주며 전망성있는 대상들은 후비간부로 장악하고 키우기 위한 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기층당조직들의 전투력은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 초급당위원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초급당위원회,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초급당위원회, 사리원시 미곡리당위원회,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관리위원회 당세포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단위의 기층당조직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뿐만아니라 청천강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명대탄광, 룡문탄광, 룡수탄광, 대동강전기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당조직들에서도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집행하는데 모든것을 지향시키고 복종시켜 지난 4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2년이 되는 지금 전당의 기층당조직들은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승리자의 든든한 배심과 신심에 넘쳐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런 기층당조직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인민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있기에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두터워지고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최후승리의 날은 반드시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채인철

##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겠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지난 2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리정표를 세우며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를 아로새겨왔다.

꿈결에도 잊을수 없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로 진감하던 영광의 대회장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자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조아박으며 불같은 맹세를 다지던 일이 어제런듯 삼삼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난 두해동안 우리 군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한걸음의 양보도 모르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워왔다.

농업군의 특성에 맞게 사상전의 화력을 들끓는 전야에 집중하고 선전선동력량을 총집중하여 그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였다. 령도업적단위들인 보석, 청정, 가산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다수확작업반, 다수확분조대렬이 늘어났으며 《애국풀》을 온 군에 퍼치여 축산물생산을 대대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돌파구도 열리게 되였다.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총진군길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군식료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에서 대중의 힘이 총폭발되여 기적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였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한 좋은 일감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쥐고 그 실현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살림집건설 및 보수와 외장재칠하기 등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내고 교육, 문화, 체육부문의 공공건물들과 운하협동농장을 비롯한 5개 협동농장들의 공공건물들도 단숨에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실로 지난 2년간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신념을 더욱 억척같이 새겨안았으며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줄달음쳐왔다.

우리는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일군들이 대오의 기수가 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킴으로써 군앞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겠다. 위대한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을 훌륭히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운전군당위원회 위원장
홍원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우리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부령합금철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

2면에서 계속

이옥하여 갱밖으로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였다.

**《오늘 기분이 대단히 좋은데 우리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오늘처럼 기분이 좋은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우리들을 몸가까이 불러 금산갱입구를 배경으로 대를 이어 길이 전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그이 품에 안겨 사진을 찍는 나의 가슴속에는 우리 룡양땅에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이 뜨겁게 흘러들었다.

멀고 험한 령길을 넘어 여러차례나 광산을 찾아주시여 이 땅을 백금산으로 빛내주시고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룡양의 광부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들이 주저앉을세라 힘겨워할세라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여 광산이 나갈 길을 밝혀주시고 석수떨어지는 갱막장까지 찾아주시면서 로동계급을 제일로 내세워주고 위훈의 큰 날개를 달아주신 그이이시였다.

그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어 사경에 처한 로동자들을 위해 비행기가 날고 한 녀성로동자의 남모르던 아픔이 깨끗이 가셔졌으며 광산의 후방사업토대가 그쯘히 갖추어져 광산은 그야말로 노래속에 꽃피는 청춘광산으로 전변되였다.

룡양땅의 새 모습, 정녕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결과이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들을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광산을 돌아보고 돌아가시는 길에서도 일군들에게 오늘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룡양광산을 돌아보니 일을 많이 하였다고, 그곳 일군들이 일을 잘하고있다고 치하해주시면서 오늘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룡양광산에 온 보람이 있다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룡양광산의 로동계급이 발휘하고있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향한 혁명적대진군길에서 조국력사에 기록할 자랑찬 기적과 위훈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룡양의 광부들을 온 나라에 자랑스럽게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한낱의 로력혁신자들을 평양에 불러주신 영광의 자리에 당당히 세워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시였다.

지금 우리 룡양광산은 부글부글 끓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룡양광산에서는 앞으로도 채굴작업의 대형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더 많은 광석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신 그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온 광산이 힘있게 떨쳐나섰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속에 룡양의 새 모습을 일떠세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나라 채굴공업의 맨 앞장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주체102(2013)년 6월

---

## 군소재지를 보란듯이, 더욱 아름답게

### ‖ 신평군일군들의 사업에서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최근년간 신평군소재지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되여가고있다. 미래원, 은덕원, 학생소년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과 소층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도로들의 기술상태가 개선되고 다리들이 건설되여 군소재지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이 성과의 밑바탕에는 당정책관철을 위해 대중의 앞장에서 만짐을 지고 헌신하는 군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가 깔려있다.

### 제힘으로 더 좋은 래일을

행복은 그 누가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손으로 창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군소재지의 여러 대상건설을 하는 과정에 새겨안은 진리이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군사람들은 이러한 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제낀다는것은 아름찬 일로 여기고있었다.

군소재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협의회를 진행할 때였다.

참가자들속에서는 아무리 속구구해보아도 문제해결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난감해하는 눈빛들이 오고갔다. 따져볼수록 자체의 건설력량을 가지고 해내기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이 앞섰기때문이였다. 일부 일군들은 많은 자재와 로력이 요구되는것만큼 그것이 해결되는 차제로 한개 대상씩 해나가자는 의향도 내비치였다.

군당책임일군은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꼈다. 더우기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것은 일부 일군들이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있는것이였다. 그는 일군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세운 목표는 방대하고 조건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해내야 한다. 할수 있는가.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반드시 해낼수 있다.

자력갱생이 제일이라는 철리를 뼈속깊이 새겨주는 그의 말은 일군들을 분발시켰다. 일군들은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립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군소재지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소층살림집건설이 첫 대상으로 정해졌다. 목적이 있었다. 많은 품이 드는 수십동의 소층살림집들을 일떠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 힘을 확신하고 떨쳐나설 때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자는데 있었다. 보다 중요한것은 그것이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문제였기때문이였다.

살림집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전투가 벌어졌다. 열렬한 조국애와 향토애로 가슴을 불태우며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낡은 살림집들을 불이 번쩍 나게 헐어버리고 기초공사를 힘있게 다그쳐나갔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얼음에 박밀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것은 아니였다. 점차 건설속도가 떠디여졌다. 맥을 놓고 나앉으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럴만도 하였다.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가 따라서지 못했던것이다.

하지만 군일군들은 누가 자재를 가져다주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제힘으로 래일을 앞당기려는 열망은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힘을 낳는 법이다. 일군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필요한 자재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였다. 그러고 군의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군세멘트공장으로 달려나가 그곳 종업원들에게 더 좋은 래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리상은 바로 자신들의 창조적투쟁속에서 꽃펴나게 된다고 하면서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선행시켜나갔다. 이에 고무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생산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세멘트를 보장하였다.

군일군들은 높은 공사속도를 보장할수 있는 중심고리를 미장공을 비롯한 기능공양성에서 찾고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이들은 살림집건설이 긴장한 속에서도 기능공양성에 각별한 힘을 넣으며 공사를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군일군들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소층살림집건설은 완공의 날을 맞이하게 되였다.

### 만족을 모르고 더 높이

이룩된 성과에 자만하면 뒤떨어진다는것을 명심하고 앞을 내다보며 더 높이, 더 빨리 달려야 한다. 이것이 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장점이다.

지난해 어느날이였다. 날로 변모되여가는 군소재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해온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흐뭇해하고있었다. 그러나 읍지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군당책임일군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더 좋고 훌륭한것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그 꿈을 소중히 여기고 실현해주는데 우리 당일군들의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일판을 벌려나가자.)

모든 건설물들을 군내인민들의 감정과 정서, 미감에 맞으면서도 표본이 될수 있게 건설하는것, 이것이 그날 군당책임일군이 내세운 목표였다. 이것은 즉시 실천으로 이어졌다.

농민휴양소를 손색없이 건설한 사실을 놓고보자.

해당 부문 일군들이 작성한 건설안을 검토하던 군당책임일군은 그것이 협소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돌렸다. 일군들에게 알아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일부 계획안을 좀 조절했다는것이였다.

그는 이것을 실무적인 문제로 볼수 없었다.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로 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명심하고 건설안을 다시 세우도록 하자. 그는 일군들이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건설안을 혁신적인 안목에서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 실현을 위해 해당 부문 일군들은 지혜를 합쳐가며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이 나날은 일군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복무관점을 가지고 어떤 높이에서 사색하고 일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한 과정이기도 하였다.

일군들은 지방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건설안을 완성한데 이어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군일군들의 완강한 실천력과 대중의 창조적열정에 의하여 농민휴양소는 훌륭히 건설되였다. 은덕원, 국수집, 학생소년회관 그리고 문화후생시설들은 이렇게 일떠서게 되였다.

만족을 모르는 이들의 일본새는 마를줄 모르는 샘과도 같이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는듯싶었다.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가 그중의 하나이다. 이 공사는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읍지구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것이였다.

공사량은 참으로 방대했다. 난문제로 나선것은 공사장에 윤전기재를 끌어올릴수 없는것이였다.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우려하였다.

하지만 군책임일군들은 대중의 힘을 믿고 공사를 끝까지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공사를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읍지구의 살림집들에 수질이 좋은 샘물이 흘러들자 인민들의 기쁨은 이를데없이 커갔다.

하지만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른다. 이들은 자기가 사는 고향땅에 더 좋은 래일을 펼쳐놓기 위해 부단히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쉼없이 창조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 *

군소재지의 새 모습, 새 풍경들은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창조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확신과 아름다운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간직하고 일떠서면 얼마든지 자기가 사는 고장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념이 안아온 소중한 열매였다.

그 나날에 신평군사람들이 뼈에 새긴것은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였다. 하기에 그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창조의 큰걸음을 힘차게 내짚고있다.

본사기자 방영진

#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비약의 불바람 세차게 몰아친다

###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에서

## 완공의 날을 앞당기며 계속혁신, 계속전진

### 평양시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 련일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종전보다 저수지언제건설속도를 1.5배로 높여 두달 남짓한 기간에 10만여㎥의 성토, 7 000여㎥의 장석공사를 해제끼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비결은 일군들이 맡겨진 공사과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간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를 다그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려단의 일군들은 어떤 일본새로 화답해나섰는가.

강본석정치부장, 리영철참모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려단앞에 맡겨진 계획량을 일별, 월별로 조개여 대대들에 내려보내는 나누기식으로가 아니라 들끓는 현실에 몸을 잠그고 걸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혁신적인 일본새로 큰 보폭을 내짚었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즉시 그들은 현지에서 협의회를 열었다. 언제건설에서의 높은 공사속도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토의가 심화되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실적만을 생각하며 로력문제에 왼심을 쓰고있었지만 려단일군들은 건설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사업을 가장 선차적인것으로 틀어쥐고 동시에 내밀기로 결심하였다.

이들의 작전에 따라 부족되는 10여대의 중량화물자동차들과 굴착기가 공사장에 집중배치되였다. 이와 함께 장석공사를 힘있게 내밀기 위한 돌채취전투도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려단일군들의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것은 언제의 전구간에 대한 배수돌담공사를 최단기간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성토작업속도를 1.5배로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은것이라고 할수 있다.

배수돌담공사는 종전같으면 한달이상 걸려야 할 아름찬 과제였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량의 돌을 공사장에 집중시키는것과 함께 대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단 며칠동안에 와닥닥 끝내도록 하였다.

평양시가 당정책관철의 기치를 들고 전국의 앞장에 설데 대한 당의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려는 려단일군들의 면밀한 작전에 의해 공사속도는 부쩍 높아질수 있었다.

아무리 좋은 작전도 결실을 맺지 못하면 탁상공론이 되고만다.

일군들의 책임은 작전을 빈틈없이 한 다음에 아래에 포치하고 총화하는것으로 끝난다고 볼수 없다. 무슨 일이든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는 일군이라야 혁명의 지휘성원이라고 말할수 있다.

도로보수를 앞세운 사실이 그것을 보여준다.

언제건설에서 련일 놀라운 혁신이 창조되는 속에 점차 더 많은 돌과 흙이 요구되였다. 운반실적이자 언제공사실적이였다.

돌과 흙운반량을 더 늘일 방도는 없겠는가.

일군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쳐나갔다. 화물자동차적재량을 늘이는것으로 해결방도는 찾았지만 이렇게 되면 화물자동차에 과중한 부하가 걸리기때문에 오히려 운반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이때 참모장이 한가지 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화물자동차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로보수에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사실 육중한 화물자동차들이 많은 량의 돌과 흙을 나르는것으로 하여 도로가 인차 패이군 하였다. 도로보수만 잘하여도 화물자동차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면서도 운반량을 늘일수 있었다. 이 안은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려단일군들은 즉시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도로보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조를 따로 내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운반실적은 종전의 1.5배로 뛰어오를수 있었다.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선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완공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모두다 당제7차대회 결정관철에로!

## 불가능을 모르는 신념의 강자들

### 룡산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힘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장!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여기에 룡산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있다. 지금 이들은 총연장길이가 근 5㎞에 달하는 물길굴을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사실 려단앞에는 공사장적으로 제일 긴 물길굴공사를 올해안으로 끝내야 할 방대한 작업량이 남아있었다. 버럭처리량만 해도 수만㎥나 되였다.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긴장한 빛이 어렸다.

리룡창려단장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일군들의 마음을 더욱 격동시켰다. 이들의 눈앞에는 그처럼 어려웠던 200여m의 붕락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물길굴을 뚫게 되어있는 수백m의 구간에는 무른 암반층이 나타났었다. 당시 일군들은 선뜻 결심하기가 힘들었다. 그것은 굴이 붕락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일군들모두가 긴장해졌다. 굴을 뚫는것은 위험하기때문에 흙물길을 건설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때 려단장이 땅을 파헤쳐 흙물길을 건설하면 없어지는 농경지는 무엇으로 보상하겠는가고 물었다.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속에 한초한초가 흘렀다. 그들을 둘러보며 려단장은 물론 흙물길을 건설하면 쉬운줄 모르지 않는다,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은 자연의 횡포와 맞아서는 난관을 뚫고나가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만한 난관앞에 주저앉아 편안한 길을 택할수 있겠는가고 말하였다.

그의 절절한 호소는 모두의 가슴을 울리였다.

먼 후날에도 조국과 후대들앞에 물길건설자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게 살며 투쟁하자.

누구나 이런 관점에서 물길굴을 뚫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사색과 토론을 거듭하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은 10여m의 깊이로 땅을 파고 명굴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물길굴공사를 진행하면 붕락구간을 능히 극복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려단에서는 붕락구간을 극복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불이 열조각, 백조각이 난다고 해도 당에서 준 과업을 기어이 결사관철하려는 불같은 각오밑에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온 공사장이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한쪽에서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한몸이 그대로 정대가 되고 함마가 되여 암반을 까냈다. 다른쪽에서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마대와 질통을 메고 미끄러운 진창길을 달렸다. 그리하여 불과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5천여㎥의 암반굴착을 진행하고 수천㎥의 버럭을 처리하면서 끝끝내 붕락구간을 극복하였다.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는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무비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더욱 깊이 새기며 공사기일을 무조건 보장할 열의로 가슴을 끓이였다.

전투시작을 알리는 발파의 폭음이 온 공사장을 들었다놓았다.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던 려단의 모든 력량이 전투장에 총집중되였다.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련일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였다.

정신력의 강자들앞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결사의 각오 안고 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길굴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될 때

### 자강도려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결사옹위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것도 일군들이며 오늘의 총진군을 조직지휘하는것도 일군들입니다.》**

물길건설장에서 자강도려단은 전투력있는 단위로 알려져있다. 결코 다른 단위들보다 조건이 좋거나 로력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일군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새겨안은 려단일군들의 일본새에서 남다른것이 있다.

대대들의 특성에 맞게 전투과업을 명백히 주고 그것을 어떤 조건에서도 무조건 수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있는것이다.

려단일군들은 물길굴공사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굴착장과 버럭처리를 하는 단위들을 고정배치하였다. 한것은 매 대대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장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였다.

실례로 다른 대대들보다 굴착장공사를 특별히 잘하는 단위가 있는가 하면 버럭처리에서 늘 앞서군 하는 단위들이 있었던것이다.

이로부터 려단에서는 굴착장과 콩크리트피복공사, 버럭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들을 고정배치하도록 하였다.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선 작업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니 시간당 실적을 올릴수 있었다. 또한 매 돌격대원들이 설비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한가지 기술이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이것은 높은 실적으로 이어졌다.

유능한 작전가, 솜씨있는 지휘관의 특기는 모든 일을 과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데 있다. 이것을 명심한 려단일군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교대전 설비점검을 어김없이 진행하도록 하였다.

려단에서는 작업조들에서 교대 30분전에 설비를 책임적으로 점검하여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총화평가사업을 적극 따라세웠다. 이것은 착암공들속에서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교대전 설비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운 결과 작업능률은 1.5배이상으로 올랐다.

경험은 일군들이 당에서 준 과업을 제기일에 무조건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유능한 작전가가 되여 완강하게 실천해나간다면 어디서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현지보도 돌격의 함성 드높은 격전장

### 평안북도려단 구성시대대전투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적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합니다.》**

여기는 평안북도려단 구성시대대의 물길굴공사장이다.

지금 여기서는 맡겨진 물길굴공사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결속하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총폭발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나래치는 공사장은 격전장을 방불케 한다.

한발파를 해제낀 기쁨안고 착암공 고영남, 원명철동무가 또다시 착암기를 틀어쥐고 암벽을 마주선다.

암벽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며 발파구멍위치를 다시금 확인한 이들이 야무진 착암기소리를 울려가기 시작한다.

기관총의 련발사격마냥 일제히 울리는 착암기들의 동음, 압축공기소리, 버럭을 가득 싣고 쉬임없이 오가는 광차들…

위훈의 분초가 흐르는 공사장에 착암기를 세워야 할 뜻밖의 정황이 조성된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이 어린다.

《동무들, 우리의 전진이 뜨지면 그만큼 완공의 날이 늦어지게 됩니다. 굴진속도를 순간도 늦출수 없습니다.》

고한남대대장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오명남시공참모를 비롯한 일군들이 선참으로 함마를 휘두른다. 그들의 뒤를 따라 돌격대원들이 함마질을 힘차게 해댄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드는것도 아랑곳없이 련속 정대를 조겨대는 돌격대원들이다.

보는이 없는 깊은 지하막장에서도 순결한 량심과 헌신의 순간순간을 이어가는 그들의 투쟁모습은 가렬한 전화의 영웅전사들을 방불케 한다.

드세찬 함마질에 불꽃이 튕긴다. 굳은 암반도 이들의 앞길을 막지 못한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발파준비구령이 울린다. 발파공이 익숙한 솜씨로 발파구멍마다에 폭약을 재우기 시작한다.

잠깐사이에 발파준비가 끝나자 힘찬 구령이 울려퍼진다.

《발파!》

《쿵-쿠쿵-쿵쿵》

발파소리가 메아리쳐간다.

물길공사장의 한초한초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조국의 한치땅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전화의 영웅들처럼 살며 투쟁해나가는 우리의 미더운 물길건설자들의 심장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전해주며 발파소리는 련이어 울린다.

##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기수들

**자강도려단 희천시대대 대대장 김희범동무**는 언제나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가 되어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능숙한 지휘관이다.

공사대상의 특성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대대가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남포시려단 대안구역대대 대대장 한명남동무**는 실력가형의 일군이다. 건설에 동원되여 오늘까지 물길공사에 자신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대대가 언제나 전투력있는 단위로 되고있는 자랑속에는 작업과제수행을 위해 늘 이신작칙하면서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킨 그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평안북도려단 구성시대대 대대장 고한남동무**는 물길건설이 시작된 첫날부터 헌신의 땀과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지휘관이다.

강한 조직력과 깐진 일본새로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전개해나갈뿐아니라 남먼저 착암기를 틀어잡군 하는 그의 남다른 투쟁기풍은 대대의 전투승리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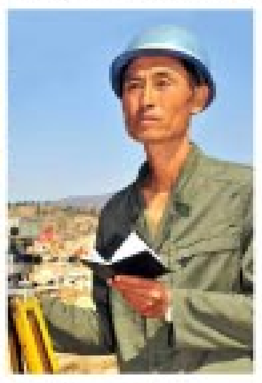
**평양시려단 시공참모 김봉철동무**는 저수지공사가 시작된 첫날부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그는 작업의 매 공정마다 돌격대원들이 공사의 속도와 함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오늘도 그는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김희범동무

한명남동무

고한남동무


김봉철동무

## 미래를 키우는 밑뿌리가 되여

### 강서구역 세길고급중학교 교원 김은화동무

열매는 보여도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헌신적인 인생을 두고 말할 때 흔히 거목을 자래우고 만가지 꽃을 피우는 뿌리에 비기군 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것은 얼마전 취재길에서 한 녀교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지난 기간 재능있는 예술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낸 강서구역 세길고급중학교의 교원 김은화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들은 꽃이나 나무를 가꾸는 원예사와도 같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고 키우는 혁명가들입니다.》**

지난 1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강서구역문화회관에서는 새해를 맞으며 구역안의 학생소년들이 준비한 예술공연이 련일 이목을 끌며 진행되였다.

《정말 전문예술단체 못지 않구만.》

《노래도 멋들어지게 부르고 악기도 잘 다루니 저런 재간둥이들의 부모들이 누군지 알고싶구만.》…

여기저기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관중들은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성과속에 깃들어있는 한 녀교원의 숨은 노력에 대하여 다는 몰랐다.

김은화동무가 음악교원으로 사업을 시작한것은 근 20년전이였다.

모교의 교단에 서던 날 그는 평범한 로동자의 딸을 따뜻이 품에 안아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수 있도록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기어이 보답할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재능있는 예술인재들을 키워내는 뿌리가 되리라.

이런 각오를 가진 그는 학교음악소조의 수준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 결심을 안고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그는 예술적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밤을 지새우며 그들의 기량을 높여주기 위해 애썼고 부족되는 악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위들을 찾아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어떤 때는 힘들어 주저앉고싶었고 울고싶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를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준 학교당조직과 구역책임일군들의 진심어린 고무와 방조는 그에게 언제나 새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교원의 자질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다는것을 명심한 그는 작이한 악기들에도 정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깊은 밤에도 그의 방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김은화동무는 학생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진정을 바쳤다.

원예사가 화단의 어느 꽃이나 정성들여 가꾸듯이.

그의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피타는 노력이 있어 학교음악소조원들의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갔다.

그는 이들과 함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백수십차의 학생소년예술선전대활동을 벌려나갔다.

이 나날 학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을 비롯한 여러 경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들의 밑바탕에는 김은화동무의 피타는 노력과 학생들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다.

하기에 학생들은 자기들의 성격과 취미, 건강상태와 기호까지도 세심히 알고 진정을 바쳐가는 김은화동무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한다.

이런 교육자의 슬하에서 자란 훌륭한 제자들이 조국의 곳곳으로 떠나갔다. 그들속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공연하여 기쁨을 드린 병사도 있고 전문예술단체에서 당당히 큰 몫을 맡아하고있는 예술인들도 있다.

대견하고 미더운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김은화동무는 교육자로서의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더욱더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뜨거운 충정과 깨끗한 량심, 무한한 헌신으로 후대들을 키우는 뿌리가 되여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쳐가는 김은화동무와 같은 참된 교육자들이 있어 조국의 미래는 더욱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 메탄가스화의 덕을 본다

### 연탄군 장운리 리세웅동무의 가정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은 자기 집뜰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전 연탄군 장운리에서는 어느 한 살림집에 도입된 메탄가스화에 대한 군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이 살림집의 메탄가스화에서 특징적인것은 겨울철에도 여름철 못지 않게 가스발생량이 항상 유지되도록 한것이다. 참가자들은 모두가 사시장철 땔감걱정을 모르게 된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가정의 메탄가스화를 살펴보면 주목되는 문제들이 있다.

집주인들의 말에 의하면 종전보다 메탄가스발생량이 많고 따라서 난방보장도 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메탄가스발효탕크옆에 집짐승우리와 미꾸라지서식장도 꾸려놓아 실리있고 합리적인 순환체계를 확립해놓은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눈길을 끄는것은 메탄가스발효탕크와 그 위치이다. 우선 메탄가스발효탕크의 체적을 종전보다 4㎥정도 더 크게 한것이다. 기질을 더 넣어주면 그만큼 메탄가스발생량이 많아지게 되는것은 물론 사용기간도 훨씬 늘일수 있기때문이였다.

또한 탕크의 위치를 달리 정한것이다. 그 위치를 살림집에서 3~4m정도 떨어진 곳에 정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집의 어느 한 벽체를 리용하여 합리적으로 건설한 온실안에 정하였다. 이렇게 하니 겨울철온도보장문제가 쉽게 해결됨으로써 탕크안에서의 발효과정이 련속 진행되게 할수 있었다.

새로운 방법으로 메탄가스화를 실현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땔감걱정이 없어져 좋다. 이 가정에서는 한해에 소비하던 많은 량의 땔나무가 필요없게 되였다. 그리고 부엌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된것도 좋은 측면의 하나이다.

모든 농촌들에서 이 가정처럼 메탄가스화를 실현한다면 땔감문제해결뿐아니라 산림보호사업에 큰 도움을 주게 될것이 아닌가.

이처럼 실리가 큰 메탄가스화의 설계를 기술자도 아닌 평범한 농민이 연구완성하였다. 그가 바로 집주인인 리세웅동무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에 대한 파악이나 경험은 별로 없었다. 원료, 자재도 부족하였다. 하지만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부른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그는 생각하였다.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것이 이 나라 공민의 응당한 의무임을 자각한 그였기에 생소한 이 길에 주저없이 나섰다.

그 길은 헐치 않았다. 그는 메탄가스화를 실현한 여러 주민세대들을 찾아가 좋은 경험담도 들었다.

그린 도면만 해도 수백장, 그 완성을 위해 새운 밤은 얼마인지 모른다.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고 생각했던적도 있었다.

이런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들은 군일군들이였다. 일군들은 합리적인 방도를 알려주면서 성공에로 이끌어주었다.

실리있는 메탄가스화는 이렇게 완성될수 있었다.

애국은 자기 집뜨락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구나 이 가정에서처럼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애쓴다면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은 더 잘 보호되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리영학

## 수리아정부경제대표단 귀국

마우룬 합단 재정상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정부경제대표단이 5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외경제성 부상 리명산동지가 전송하였다.

## 해외동포대표단들이 떠나갔다

강정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대표단, 김춘권 효고현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효고일군대표단, 박기범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의학자대표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 스웨리예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 귀국

니클라스 스반스트룀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예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이 5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대표단은 방문기간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비롯하여 대외경제성,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일군들과 조선반도정세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판문점을 참관하고 콩크리트장벽을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 뜨거운 향토애로 행복의 열매를 가꾸어간다

## 영광군을 찾아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참된 삶이 꽃펴나는 고향땅을 열렬히 사랑한다.

얼마전 영광군에 대한 기행길에서 우리는 이곳 인민들이 지닌 향토애를 가슴후덥게 체험할수 있었다.

군에 도착한 우리가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을 만났을 때였다. 그는 방에 걸려있는 직관판을 가리키며 자기 고장에는 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가 력력히 어려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직관판에는 절세위인들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지역과 단위들이 붉은기와 오각별로 촘촘히 표시되여있었다.

직관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일군은 군의 이름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고장이라는 뜻에서 지어진것이라고 알려주는것이였다. 그의 말에서 우리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을 안고 사는 이곳 일군들과 인민들의 진정을 느낄수 있었다.

영광의 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보다 훌륭히 꾸려가려는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일본새를 말해주는듯 읍지구에는 포장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어나가고 여러가지 색갈의 외장재들을 산뜻하게 칠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이 산골군의 운치를 돋구며 도로량옆에 늘어서있었다.

우리는 먼저 읍지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성천강30호발전소를 돌아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9(2000)년 8월 몸소 성천강29호와 30호발전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발전소들에서 나오는 전기로 긴장한 전기문제를 풀고 많은 살림집들의 전기난방화를 실현하였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영광의 그날로부터 십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발전기들은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고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일군은 배전반실에서 발전기상태를 화면을 통해 감시하고있는 로동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발전기수차메딸의 수명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전력생산의 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소개해주는것이였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려는 발전소로동자들의 심장의 박동인양 발전기들은 기운차게 돌아가고있었다.

발전소를 떠난 우리는 이어 영광군농기계작업소를 찾았다. 작업소에서는 이동식벼탈곡기를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있었다. 지난해 이 군의 한 농장에서는 자체로 제작한 이동식벼탈곡기를 리용하여 벼탈곡을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벼탈곡기를 모든 농장들에 받아들이기 위한 제작전투를 조직하고 력량을 총집중하고있었다. 전투현장에 들어서니 량옆에는 완성단계에 이른 벼탈곡기들이 줄지어 늘어서있었다. 우리에게 작업소의 일군은 저 벼탈곡기들이 농장마다에서 선발되여온 농장원들이 지금까지 조립하여온것이라고 알려주는것이였다. 수십종에 달하는 부속들이 놓여가는 탈곡기를 농장원들이 조립하고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우리와 만난 룡호협동농장의 한 농장원은 농기계작업소동무들의 진심어린 기술적방조와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현실이 펼쳐지지 못했을것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가 정담아 쓸어만지는 은빛으로 빛나는 부속품들에 농기계작업소로동자들의 노력과 땀방울이 슴배여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마음도 뭉클해지였다.

현장마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소재를 깎고 용접불꽃을 날리는 로동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있는것인가. 다름아닌 황금이삭이 물결치는 협동벌에서 제손으로 만든 농기계들이 은을 내게 될 더 좋은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였다.

우리는 그들의 열망을 작업소구내에 세워진 속보판의 글발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게 되였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탈곡기의 중요부분품을 자체로 해결한 룡호, 신창리전투원들 제일 앞장에서 달린다》, 《농기계작업소 가공작업반동무들 고지에 탄약을 공급하는 심정으로 소재가공에서 련일 혁신!》, 《읍녀맹예술선동대, 군인민병원의 현장치료대동무들 힘있는 경제선동과 치료사업으로 전투원들을 고무!》…

그 글발들과 함께 100%계선을 가까이하며 붉은 줄이 쭉쭉 올라가는 사회주의경쟁도표를 보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농기계종대들이 읍지구를 누비며 나가게 될 그날이 앞당겨지리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이어 우리는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과외교육교양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영광군학생소년회관을 찾았다.

2층으로 된 회관에는 미술, 성악, 태권도소조실을 비롯하여 여러 소조실들이 꾸려져있었다. 1층의 미술소조실에 들어서니 소조원들이 창작한 미술작품들이 한쪽벽면에 쭉 전시되여있었다. 소박하면서도 참신하게 형상된 미술작품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도교원의 지도속에 나날이 높아가는 이곳 소조원들의 미술실기수준을 알수 있었다. 우리는 이어 2층에 있는 무용소조실을 찾았다. 무용소조실에서는 무용복을 입은 소조원들이 무용작품을 무르익혀가고있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축구선수들의 생활을 펼쳐보이는 무용은 구체적인 생활세부들에 대한 형상과 재치있는 기교들이 배합되여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우리에게 지도교원은 소조실에 깔아놓은 보기에도 탐탁한 바닥재를 가리키며 산골학생들이 도시의 학생들 부럽지 않게 마음껏 춤가락을 익힐수 있도록 군당위원회일군들이 마련해준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지난해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에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그 악기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학생들을 보기 위해 회관에 나왔던 군당위원회 책임일군은 무용소조실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앞날의 무용배우가 될 꿈을 안고 자라는 학생들이 베자를 깐 바닥에서 무용훈련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임일군은 마음속가책을 받게 되였다. 즉시 소조실에 바닥재를 깔아주기 위한 분담안이 세워지게 되였다. 해당 일군들은 처음에 목재를 가공하여 바닥재를 만드는것으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런 바닥재는 인차 변형되기마련이다. 군당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미흡한 바닥재를 깔아줄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원만해서는 변형되지 않는 든든한 바닥재를 마련하여 학생소년회관의 여러 소조실들에 깔아주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소조실들의 달라진 면모는 학부형들의 마음을 후덥게 해주었다. 비록 크지 않은 바닥공사였지만 학부형들에게는 우리 생활에 따뜻이 비쳐드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새기게 한 잊을수 없는 계기가 되였던것이다.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기대를 명심한 이곳 나어린 무용소조원들은 무용훈련을 직심스레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집단적혁신과 따뜻한 정으로 행복의 열매를 가꾸어가는 영광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투쟁본때를 우리는 읍지구로부터 퍼그나 떨어진 삼흥리에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도 더 잘 알수 있게 되였다.

올해 1월 삼흥리의 어느 한 작업반마을에서는 살림집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군안의 일군들이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 농장의 일군들은 피해를 입은 세대들을 농장에서 맡아 돌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당위원회에서는 현지에서 뜻깊은 광명성절전까지 살림집건설 및 보수를 무조건 끝내고 인민들에게 안착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긴급전투를 선포하였다. 하여 삼흥리의 크지 않은 마을에 군안의 모든 력량이 총집중되는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전투기일은 한달도 채 안되였다. 그러나 마을인민들의 생활상애로를 한시바삐 가셔주려는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투쟁기세는 불길처럼 타올랐고 날과 날이 기적과 혁신의 새 소식으로 이어지였다.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성의껏 마련한 많은 집세간들과 생활용품들도 삼흥리에 보내주었다.

한겨울에 진행된 감동깊은 건설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삼흥리에 도착하니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시버린 마을에는 살림집들이 줄지어 일떠서있었다.

우리는 마을에서 딸들과 함께 집뜨락에 과일나무를 심고있는 한 녀성농장원을 만날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는 우리 나라가 아니라면 이런 기쁨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라고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집안에 들어섰다. 집에는 새 창문과 출입문이 달려있었고 집세간들도 그쯘하게 갖추어져있었다.

우리가 마을을 돌아보고 동구밖에 나서니 포전들에는 붉은기가 날리고 뜨락또르가 기운차게 포전들을 오가고있었다.

그 모든것을 붉게 물들이며 삼흥리의 하늘가에는 저녁노을이 비끼기 시작하였다. 가없이 넓은 하늘가에 펼쳐진 저녁노을은 더욱 흥하게 될 영광군의 밝은 래일을 약속해주는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차 수

### 염주군문화회관에서

# 대중교양의 거점을 훌륭히 꾸려놓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회관을 통하여 여러가지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염주군에서 문화회관을 대중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려놓고 그 운영을 잘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문화회관의 넓은 현관을 지나 중앙홀에 들어서니 특색있는 장식등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홀에 모셔진 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본 후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수백석의 좌석이 그쯘히 갖추어진 관람홀이였다.

층을 맞춰 설치된 의자들은 사용에 매우 편리하게 되여있었고 경쾌한 흐름선을 이루며 형성된 천정은 마치 수도의 화려한 극장내부를 연상케 하였다.

무대막이며 음향 및 조명시설들도 나무랄데없이 갖추어져있어 그 어떤 예술공연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여있는것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새로 개건보수된 군문화회관이 처음으로 운영되던 때를 군안의 인민들은 지금도 두고두고 외운다고 한다.

그날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공연이 끝난 다음 군의 책임일군은 무대우에 올라가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달라붙으면 무엇이나 창조할수 있다. 군문화회관을 자체의 힘으로 개건보수한 그 기세로 우리 군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자. 그의 열정적인 호소에 수많은 군중이 열렬한 박수로 호응하였다고 한다.

이어 우리는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는 군안의 고급중학교졸업생들을 위하여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준비한 축하공연을 관람하였다.

남성독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내가 지켜선 조국》과 녀성독창 《나는 알았네》 등 공연무대에 오른 종목들에는 나서자란 고향과 정든 사람들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조국보위초소에서 위훈을 떨쳐갈 관람자들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여있었다.

후방가족인 한 녀성이 부른 노래 《영웅된 아들소식 꿈같이 전해왔네》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제일 앞자리에 우리 염주청년들이 서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영웅이 되여 고향에 돌아오는 동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열렬한 박수소리, 가슴이 모자라게 안겨지는 꽃송이들…

관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군에서는 문화회관을 새로 훌륭히 꾸려놓은데 맞게 그 운영을 실속있게 짜고들기 위한 사업이 당조직의 지도밑에 활기있게 진행된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주요기념일들을 맞으며 예술공연, 영화상영 등 여러가지 사업들과 함께 근로단체조직들의 계획에 따라 강연회를 비롯한 다양한 모임들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언제나 흥성이는 문화회관, 바로 여기서 우리 근로자들이 혁명적랑만에 넘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있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문화회관운영을 강화할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 성 룡

우리 민족옷의 우수한 전통을 살려나가기 위해 지혜를 합쳐간다.
-서성구역종합양복점 서성조선옷점에서-
본사기자 찍음

### 공화국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지식인들

# 나라의 보배과학자 유숙근

김일성훈장수훈자 로력영웅 인민과학자이며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유숙근선생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진짜애국자이며 우리 나라의 보배과학자라는 값높은 믿음을 받아안은 관록있는 의학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에 한생을 바치려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되기 전에 열렬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짙게 드리웠던 주체10(1921)년 9월 평범한 교원의 가정에서 태여난 유숙근선생은 의학에 대한 남다른 소질을 가지고 의학공부를 시작하였다. 피타는 정열로 학문을 닦아가는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아가는 전염병을 모조리 없애버리고싶은것이 소중한 꿈으로 자리잡고있었다.

유숙근선생이 품었던 소원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과 함께 용약 의용군에 입대한 유숙근선생은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고 몸소 과학자대회까지 진행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세계에 심장으로 매혹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새 조선의 과학자들모두의 영원한 보호자이시고 자애로운 스승이시라는것을 신념으로 새겨안게 되였다.

가렬처절했던 전화의 나날 유숙근선생을 비롯한 우리의 학자들이 이룩한 연구성과들은 싸우는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숙근선생은 홍역예방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어려운 과학탐구의 나날 유숙근선생의 연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세심히 보살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귀여운 자식들을 전염병에 대한 불안과 근심을 모르고 키우고싶어하는 이 나라 천만어머니들의 소원을 합친것보다 더 크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을 안고 유숙근선생과 그의 연구조는 드디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홍역예방약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자신께서는 온갖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인민을 해방시키는것도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날이때까지 애써왔는데 그 녀성의학과학자가 자신의 이 소원을 풀어주었다고 하시면서 유숙근선생의 과학적공적을 조국과 인민앞에 값높이 내세워주시였다.

나라의 의학발전을 추동하는 연구성과에 깃든 녀성과학자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깨끗한 량심을 귀중히 여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칭호도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김일성훈장수훈자로 내세워주시였다.

우리 당에서는 유숙근선생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비롯한 영광의 대회들에 대표로 불러주었고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때에는 모녀박사인 그와 딸을 다같이 내세워주었다.

이렇듯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떠받들려 유숙근선생은 수많은 전염병예방약들을 만들어내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방역전서》, 《방역편람》을 비롯한 가치있는 도서들을 집필하였다.

유숙근선생은 한생토록 늘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라고 입버릇처럼 외웠다고 한다.

이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자기의 한생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고마운 어머니당을 위하여 끝없이 더 많은 일을 하고싶어한 한 녀성과학자의 심장의 고백이였다.

이런 불타는 충정과 순결한 량심을 지닌 과학자였기에 유숙근선생은 우리 공화국력사에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뚜렷한 삶의 자욱을 남길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 성 민

# 녕변의 비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녕변은 예로부터 비단산지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불리워온 약산동대가 자리잡고있는 녕변은 전통적인 민족옷감인 비단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녕변의 비단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고있다.

녕변이 자리잡은 지역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비단산지중의 하나였으며 특히 녕변의 비단은 그 질과 생산량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력사기록들에 의하면 녕변을 비롯한 평안도지역은 다른 지방보다 비단이 더 많이 생산된 지방이였고 당시 국내견직업의 중심이였다.

녕변의 력사를 전한 옛 문헌에 의하면 녕변에서는 뽕나무를 많이 심고 누에를 많이 키웠다고 기록되여있으며 특산품으로 누에고치를 꼽고있다.

녕변에서는 향사주를 비롯하여 항라, 칠색단 등이 생산되였는데 그중에서도 향사주는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있었다.

향사주의 직조과정에 녕변의 인민들은 우리 나라 고유의 고급비단인 보본단을 만들어냈으며 향사주의 직조에 필요한 향사기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비단생산을 한계단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녕변의 비단은 거의나 봉건통치배들의 독점물로 되여있었으며 더우기 일제의 식민지민족문화말살책동에 의하여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였다.

민족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녕변에 현대적인 비단생산기지를 꾸려주시였으며 주체43(1954)년 6월 중순에는 우리의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비단시제품들을 보아주시고 비단천의 조직과 문양, 색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살피시였다.

일부 비단들에 아직 이름을 달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녕변에 예로부터 유명한 약산동대가 있고 거기에는 진달래가 많다고 하시며 진달래꽃문양의 비단천의 이름을 《약산단》이라고 지어주시였다. 그리고 다른 비단천은 무늬가 흐르는 물처럼 은은하다고 하시며 약산동대아래로 흐르는 구룡강의 이름을 따서 《구룡단》이라고 이름을 달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더 활짝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녕변견직공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공장이 나갈 방향과 생산정상화의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공장이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비단천생산공장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녕변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비단은 조선옷감의 주류를 이루며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박 신 정

# 일군의 정서와 일욕심

향산군에 가면 청천려관 지배인을 두고 누구나 입버릇처럼 외우는 말이 있다.

일욕심이 많고 정서가 풍부한 일군, 정열가형의 일군, 무슨 일에서나 막히는데가 없이 척척 해제끼는 팔방미인…

그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별칭들도 있다. 려관의 초급당일군의 말에 의하면 그를 두고 종업원들은 독서애호가, 화초애호가, 나무연구사, 체육애호가, 축산박사, 건축장식전문가, 문학예술애호가라고 부른다는것이다.

그가 이런 정다운 호칭으로 불리우게 된것은 책을 많이 보고 다재다능한 일군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데서는 책을 많이 보는것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명심지배인이 매일 열심히 탐독하는 도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이다. 그는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각이한 분야의 책들도 꾸준히 읽는다.

샘줄기가 없는 곳에 양어장을 꾸리면 인차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것처럼 사람이 책을 보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만다. 오늘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면 누구나 풍부한 지식을 주는 말없는 선생인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며 생활신조이다.

하기에 지배인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짬을 내여 여러 분야의 책을 열심히 읽으며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도 거기서 찾아낸다.

지난 수십년간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관상용나무와 악기제작에 쓰이는 나무, 과일나무를 비롯하여 수천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려관주변에 심은 사실, 군적으로 대중체육열의가 제일 높고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단위로 손꼽히는 사실, 려관안팎을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인민봉사단위답게 훌륭히 꾸린 자랑의 밑바탕에는 지배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당에서 바라는것은 열가지든 백가지든 무조건 해내야 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해내겠다는 불같은 열정이 그를 박식가로 만들었고 정서가 풍부한 일군으로 되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그의 사무실에는 희귀한 선인장들과 갖가지 아름다운 화초들이 자라는 화분만 해도 수십개나 된다.

그는 종업원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공연의 대본도 직접 쓰고 형상지도를 하고있으며 려관내부의 바닥과 벽체, 천정장식을 더욱 특색있게 하기 위한 도안도 자기 손으로 그린다. 이 과정에 지배인은 풍부한 정서와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일군으로 더욱 믿음직하게 준비해가고있다.

최근에는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일념을 안고 곤단백풀과 《애국풀》을 많이 심어 축산도 추켜세우고있다.

청천려관을 한바퀴 돌아보니 일욕심이 많고 정서가 풍부한 일군, 정열가형의 일군, 무슨 일에서나 막히는데가 없이 척척 해제끼는 팔방미인이라는 종업원들의 말이 정말 그른데 없다고 감탄하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우리 청천려관을 더 훌륭히 꾸리고 봉사사업에서도 더 큰 혁신을 일으켜나가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배우는데서는 종업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이악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관점에 서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이런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계속 분발해나갈 때 우리 조국의 모습은 더욱 아름다와지고 인민의 웃음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백 성 근

# 리용전망이 큰 전기추진선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추진선박이 수산업과 해상운수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그것은 이 선박이 수역이 복잡하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것과 같은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서 선박의 조종성을 높여 항해의 믿음성과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지금까지 광범히 리용되여온 선박들은 거의 기관에 의한 직접추진체계에 의거하고있다.

직접추진체계에서는 추진기가 기관과 직접 련결되여있어 회전속도를 넓은 범위에서 원활하게 조종하기 어려웠다. 특히 침로조종이 키에 의존되여 낮은 속도에서 선회반경이 크고 침로안정성이 높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의 속도와 침로를 보다 원활하게 조종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 과정에 새로운 구조의 전기추진체계가 개발도입되게 되였다.

전기추진체계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산된 전기를 추진기와 결합된 추진전동기에 공급하여 필요한 추진력을 얻도록 되여있다.

현재 리용되고있는 전기추진선박에는 추진전동기에 의하여 추진력을 얻고 침로는 키에 의하여 변화시키는 전기추진선박과 추진력은 추진전동기에 의하여 얻고 침로변화는 추진기와 결합된 추진전동기자체를 회전시켜 추진력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실현하는 전기추진선박이 있다.

오늘날 전기추진체계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실용화되여 선박운영에서 큰 진보를 가져오고있다. 조종성이 좋고 기관설치가 편리한 전기추진장치는 지금 현대선박동력장치의 주요형식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려객선, 끌배 등에 널리 도입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는 새로운 전기추진선박건조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대동강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며 새로운 형태의 전기추진선박인 태양빛전지유람선 《옥류1》호, 《옥류2》호, 《옥류3》호가 건조되여 운영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해양
공학부 실장 차 성 일

# 화강석세척제와 그 리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축은 실용예술인것만큼 편리성과 함께 아름다움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품위있는 건축물들을 보면 대체로 화강석과 같은 천연석재들로 마감장식을 하였다. 그런데 이런 건축물들에 리용된 석재들이 여러가지 물질에 오염되면 그 미적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석재의 화학적 및 광물학적성분과 오염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것에 적합한 세척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되여 여러가지 석재세척제와 보호제, 착색제 등이 연구개발되고있다. 또한 석재의 오염원인을 판단하고 세척 및 보수를 진행하는 전문단체들이 조직되고 전문기술인원들을 양성하여 장식석재의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있다.

석재의 오염형태에는 세멘트에 의한 오염, 철분에 의한 오염, 유기물질에 의한 오염 등이 있다.

오염원인도 여러가지이다. 시공과정에 사람들의 부주의로 하여 건축물겉면에 세멘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석재의 철성분에 의해서도 오염될수 있고 용접불꽃에 의해서도 오염될수 있다. 색소와 기름에 의해서도 석재가 오염된다.

석재를 세척할 때에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석재가 손상되지 말아야 하고 표면의 오염물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또한 환경에 유해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세척방법에는 물세척방법과 기계적세척방법, 화학적세척방법 등이 있다.

우리 대학의 연구집단은 화강석의 겉면에 생긴 각종 형태의 오염물들을 신속히 제거하면서도 쓰기 편리한 세척제들을 연구완성하였다. 그리고 오염물의 종류에 따르는 화강석세척제들의 품종을 계속 늘여나가는 한편 많은 대상들에 도입해나가고있다.

평양건축종합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오 은 경

# 군중문학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청남구) 당학교에서 학생들의 군중문학창작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학교에서는 군중문학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혁명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힘으로 부르죠아반동문화를 짓눌러버리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학생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그들의 창작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학생들의 창작적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내미는것과 함께 문학창작에 필요한 지식들도 알기 쉽게 배워주면서 학생들이 군중문학창작활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하여 문학창작을 취미나 소질이 있어야 하는것처럼 여기던 학생들도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중문학창작활동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더욱 깊이 새긴 학생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을 써내는것과 함께 문학창작과정을 통하여 서로 도와주고 지혜를 합쳐가는 좋은 기풍들도 적극 발휘해나가고있다. 활발히 벌어지는 군중문학창작활동을 통하여 학교에는 혁명적이며 랑만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고있으며 학생들이 높은 정치실무적자질과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갖춘 일군들로 자라고있다.

로동통신원 우 창 희

#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펼치신 탁월한 공적

자주통일위업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력사의 신호총성이 높이 울렸다.

지난 4월 27일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판문점에서는 력사적인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오는 분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담은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였다.

장장 70여년세월 분렬과 대결의 상징, 원한과 눈물의 대명사로 불리워왔던 판문점에서 의의깊은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채택된것은 북남관계와 통일위업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펼쳐준 민족사적인 사변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4.27선언의 채택과 더불어 밝아오는 통일의 서광을 눈앞에 그려보며 신심에 넘쳐 자주통일에로 향한 진군의 보폭을 힘차게 내디디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판문점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4.27선언이 채택된것은 자주통일의 새 력사,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시작되였음을 알리는 힘찬 고고성이다. 삼천리강토와 전세계를 뒤흔든 판문점에서의 력사적인 사변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세기적숙망이며 북남관계개선은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 부강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출발점으로 된다.

그러나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북남관계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파국상태에 놓여있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범죄적인 대결야망을 추구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활력있게 진행되여오던 북남대화와 협력을 파탄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통일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의 망동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은 최절정에 달하고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히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북남관계의 파국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도 자주통일에로 향한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4.27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관계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귀중한 초석이 마련되였다.

4.27선언에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참으로 4.27선언의 채택은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나라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것으로 된다.

판문점상봉과 회담, 4.27선언의 채택은 절세의 위인이시며 희세의 정치거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비범특출한 령도밑에 이룩된 민족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결상태에 처해있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실 구상을 안으시고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성된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할데 대한 문제,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데 대한 문제,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데 대한 문제 등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절세위인의 고결한 충정과 확고한 통일의지, 숭고한 민족애의 발현이다.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의 제시와 그 실현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여 두텁게 얼어붙었던 대결의 장벽에 파렬구가 생기고 북남사이에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되여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인담대한 배짱과 통이 큰 결단, 불같은 민족애가 있고 그이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에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흐름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드디여 력사적인 판문점상봉과 회담, 4.27선언의 채택이라는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올수 있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 찬란한 미래를 밝힌 민족사적대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실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이번 판문점상봉은 《통일에 한발 선뜻 다가선 사변》이며 4.27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이어 《조선반도와 민족의 운명을 새로 개척한 선언》이라고 극구 찬양하면서 《새 력사를 펼친 김정은위원장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송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고 4.27선언을 채택하여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대범한 결단에 의해 마련된 력사적사변이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특기할 대공적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력사의 땅 판문점에서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고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펼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거대한 업적은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은 정 철

# 20세기의 영원한 태양, 희세의 선군령장

### 인터네트국제토론회 에스빠냐에서 진행

태양절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인터네트국제토론회가 조선과의 친선협회의 주최로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에스빠냐 따라고나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토론회와 관련하여 개설된 인터네트홈페지 특별페지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와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띤 뢰체르,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을 비롯한 여러 나라 인사들이 《조선의 붉은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20세기의 영원한 태양》, 《김정일 그이는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선군명장, 세계 진보적인류의 광명성》 등의 제목들로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를 지니시고 자주와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수많은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주신 절세위인을 광범한 국제사회계가 인류해방의 은인으로 열렬히 흠모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다지신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거룩하신 존함과 자애로운 영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며 그분들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빛나게 계승해나가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주체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행장을 차리기 전에 마음부터 고쳐먹으라

《일본이 모기장밖에 놓였다.》

최근 일본정가와 언론들에서 이런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모기장밖에 있으면 모기에 물려 일본뇌염과 같은 몹쓸병에 걸리기 십상이다. 이런데로부터 일본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천시를 받을 때 《모기장밖에 있다.》는 형상적표현을 사용한다.

지금 일본항간에서는 이 말이 조선반도정세흐름에서 밀려나있는 《일본소외》를 가리키는 성구로 통용되고있다.

지난 4월 27일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봄우뢰마냥 터진 이후 일본에서 《모기장》소리가 더욱 불안한 어조로 울려나오고있다.

세계적관심사인 조선반도문제에서 이웃인 일본이 소외되고있다는 비평이 쏟아지자 아베가 또다시 《일본이 모기장밖에 놓이는 일은 없다.》고 우겨댔다고 《산께이신붕》을 비롯한 일본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사실 오늘날 일본의 외토리신세는 실로 가련타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운명을 론의하는 자리에 그림자도 끼우지 못하는 일본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세를 다루는 마당에 누구도 일본을 청하지도 않으며 일본이 앉을 방석을 마련할 필요는 더우 느끼지 않는다.

판문점상봉성과를 축하하는 만찬탁에 독도가 포함된 조선반도그림이 새겨진 식후다과가 오른것을 놓고 외상 고노가 《매우 불필요한것》이라고 두덜거린데 대해 외신들이 이것은 초대를 받지 못한 불쾌감을 드러낸것이라고 야유한것이 우연하지 않다. 이제는 미국상전조차도 성가시게 매달리지 말라고 짜증을 내는 판이다.

이렇게 세계정치의 물결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멀리 흘러가고있다. 일본이 여기 있소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사품치는 대세의 격랑에 모기소리처럼 삼키워버리고만다. 동북아시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은 무심하다.

이쯤되면 일본은 그만 앙앙불락하고 저들이 왜 축에 끼우지 못하고 《일본소외》 다시말하면 《재팬》이라는 뒤에 《패싱》이라는 꼬리를 달고다니는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면 누가 저들을 따돌린것이 아니라 제스스로가 그런 대접을 청하고있다는것을 대뜸 알수 있을것이다.

온 세계가 조선반도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는 오늘도 일본은 어떻게 처신하고있는가.

일본수상 아베는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자 마지못해 환영한다고 하고는 《북조선이 대화마당으로 나온것은 강력한 대북압박을 주장해온 미국과 일본의 역할에 따른것이다.》, 《일본이 국제사회를 이끌어온 성과이다.》라고 생뚱맞은 소리를 하여 세인을 아연케 했다.

새해에 들어와 우리의 과감한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지는 속에 북남대화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게 되자 낯색이 꺼메가지고 허겁지겁 평창에 달려와 《북조선의 미소외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쇠된 소리를 지르며 잔치상에 재를 뿌리다가 퉁을 맞고 후줄근해가지고 쫓겨갔던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아무리 간특한 족속들이기로서니 우리 민족끼리의 열매를 제 《공로》로 가로채는 그런 몰렴치가 어디 또 있겠는가.

하기는 카멜레온처럼 요변스러운 일본족속의 변신술은 워낙 유명하다.

지난해에는 도꾜한복판에 당장 미싸일이 날아와 터질것처럼 《북조선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군국주의광풍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더니 정세가 돌변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훈풍이 불자 이제는 《평화의 사도》로 둔갑하여 평양길에 무임승차하겠다고 한다.

부하들도 문전박대받기 딱 좋게 놀고있다.

외상 고노를 비롯한 수하막료들은 북조선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있을수 없다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고있다.

《요미우리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등 일본언론들과 전문가나부랭이들도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놓고 야살스럽게 떠들고있다.

북남수뇌회담이 조미회담에로 가는 문을 여는 격에 불과하다느니, 북조선의 전략은 미국과의 직접회담을 통해 시간을 들이면서 경제제재완화와 체제보장을 약속받는것이라느니, 판문점선언에 일본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이번 회담에서 랍치문제가 론의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느니 하며 찧고까불고 재잘이고있다.

지어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으로 그 무엇을 얻거나 일본을 통해 제재망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망설까지 내돌리고있다.

북조선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려면 일본의 보상 및 경제지원이 필요할것이라느니, 일본에서 거액을 얻어내여 경제재건의 기폭제로 삼으려는 의도이라느니 뭐니 하며 돈밖에 모르는 경제동물의 저렬성을 여지없이 로출시키고있다.

일본렬도에서 연출되고있는 이 모든 꼴불견은 남의 일이 잘되는것을 배아파하는 섬나라족속들의 체질화된 못된 속통과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해방전에는 우리 나라를 강탈하고 배를 불렸고 해방후에는 조선의 분렬과 불행에서 저들의 리익을 챙겨왔으며 조선전쟁에서는 돈소나기까지 맞으며 풍청거리던 일본은 북과 남이 손을 잡고 자주적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당황망조해하고있다.

더우기 미친듯이 몰아대던 군국주의마차가 조선반도정세완화로 제동이 걸리게 되였으니 일본반동들이 히스테리발작을 일으킬만도 하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세상이 달라졌고 그에 맞게 일본의 생존방식도 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것이다.

이제처럼 대조선적대시책동에서 살길을 찾겠다고 시대착오적인 망동을 부리다가는 세인의 조소거리밖에 될것이 없게 되였다.

지금 약삭바른 일본정객들이 조일관계에서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기웃거리고 속구구를 해보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문제는 진정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관계를 개선하자는 립장인가 하는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본이 처신하는것을 보면 옴니암니하며 시대의 흐름에 선뜻 뛰여들 자세가 아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은 조미대화결과까지 지켜보다가 말꼬리에 붙어 강을 건느려고 약삭바르게 타산하고있는데 그러다가 제때에 제가 넘어가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명심할것은 운명의 갈림길에서 지금처럼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진부한 곡조를 외우며 밉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 언제 가도 개밥의 도토리신세를 면할수 없게 된다는것이다.

가시돋힌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

조선속담에 미운 놈 떡 한개 더 준다는 말이 있지만 일본에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지방이 산보다 높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상전에 청탁하고 주변대국에 구걸하며 남조선당국에 빌붙어서라도 평양문턱을 넘어서보려고 갖은 잔꾀술수를 다 쓰고있지만 그 고약한 속통과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억년 가도 우리의 신성한 땅을 밟아보지 못할것이다.

일본은 행장을 차리기 전에 마음부터 고쳐먹으라.

조 남 진

## 로씨야 세계적인 군비경쟁의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폭로

로씨야외무성 전파방지 및 무기통제국 국장이 최근 한 회의에서 세계적인 군비경쟁의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성숙된 다극세계의 객관적인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는데로부터 현정세는 건설적인 협조공간이 전례없이 좁아지는것으로 특징지어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국제사회를 더이상 지배할수 없다는 인식이 미국과 서방의 신경과민을 불러오고 제재, 무력에 의한 강요, 국가들사이의 비륜리적인 행위 등을 초래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로 하여 세계적인 군비경쟁은 전지구적인 안정과 세계안전에 해독적영향을 주는 매우 위험한 현실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 꾸바 미국의 봉쇄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할 립장 천명

꾸바근로자중앙 총서기가 2일 꾸바와의 국제련대성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꾸바는 미국의 봉쇄책동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시기 더욱 가혹해지고있는 미국의 제재는 꾸바의 발전을 가로막고 많은 생활상애로를 조성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미국의 봉쇄를 짓부시는것은 꾸바의 가장 큰 투쟁목표이라고 강조하였다. 꾸바는 국제적인 사회로동운동들과 아메리카의 정의롭고 진보적인 나라들과의 련대를 강화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 군사훈련 진행

중국이 공군무력강화에 큰 힘을 넣고있다.

최근 중국공군은 《섬-11》, 정찰기, 조기경보기 등 여러 기종의 전투기들로 해상방향으로의 실전훈련을 진행하였다.

4월 19일 중국공군 보도대변인은 이에 대해 밝히면서 훈련과정에 전투기들의 기동능력과 실전능력이 검증되고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능력이 높아졌다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중국륙군항공병부대가 18일 동남부연해지역에서 주야간 해상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해상실탄사격훈련에서 기본은 환경, 전법, 방법측면에서 야간과 해상, 먼거리공격과 협동공격, 독자적인 정찰과 림기응변의 결심채택 등을 중심에 놓고 부대의 실전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훈련에서 여러 기종의 무장직승기들의 긴밀한 배합과 효률높은 협동이 진행됨으로써 륙군항공병부대의 해상작전능력이 전면적으로 검증되였다고 한다.

한편 중국해군의 항공모함 《료녕》호와 여러척의 구축함 및 호위함, 함재기들로 구성된 항공모함편대가 4월 20일 서태평양수역에서 원해작전운용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낯선 수역에서의 함선들과 함재기들사이의 협동을 중심에 놓고 항공모함편대의 종합적인 공격 및 방어체계구축과 유지능력을 검열하는데 있었다.

훈련을 통하여 복잡한 상황에서의 지휘관들의 작전지휘와 결심채택능력을 높이였다고 한다.

### 공해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노력

몽골의 울란바따르시에서 공해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특히 자전거리용을 적극 장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4월 24일 시정부는 시안의 40여개 장소에 자전거임대소들을 내오고 5월 31일부터 임대봉사를 진행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시에서는 2033년까지 500개의 임대소를 꾸리고 5 000대의 자전거를 봉사에 리용할 목표를 내세웠다 한다.

### 주단수출 증가

이란에서 올해 3월 20일에 끝난 지난 이란년도에 손으로 짠 주단 5 400 t을 수출하였다.

수출액은 그 전 이란년도에 비해 18% 증가되였다 한다.

4월 25일 이 나라 신문 《파이낸셜 트리뷴》이 전하였다.

### 테로반대투쟁 강화

에짚트가 시나이반도의 북부와 중부지역에서 테로반대투쟁을 강화하고있다.

4월 25일 이 나라 군부는 지난 1주일동안 테로분자 30명을 소멸하고 170여명을 체포하였으며 많은 무기와 탄약이 실려있던 10대의 륜전기재들을 파괴하였다고 밝혔다.

에짚트에서는 올해 2월초부터 현재까지 처단된 테로분자가 약 240명에 달하였다 한다.

### 고속도로건설 추진

알제리에서 고속도로건설을 추진하고있다.

사하라사막을 횡단하는 지역적인 고속도로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알제리는 1 800㎞구간의 고속도로건설공사를 맡고있다.

그중 지금까지 1 600㎞의 구간을 완공하고 나머지구간의 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사하라사막을 횡단하는 지역적인 고속도로건설은 알제리, 뛰니지, 말리, 니제르, 나이제리아, 챠드를 련결하는 대규모적인 공사로서 이것이 완공되면 아프리카의 무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활발하게 벌어지는 남남협조

얼마전 중국이 몽골과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싱가포르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쌍무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협조는 해당 나라들이 공통된 지향과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모든 분야에서 서로 유무상통함으로써 나라의 번영발전을 이룩해나가는데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와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남협조를 진행하고있다.

무엇보다도 대륙내 나라들간의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동남아시아나라들인 캄보쟈, 라오스, 윁남이 2030년까지 경제협조관계를 발전시킬데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이 나라들은 정치, 경제,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해나가게 된다고 한다. 윁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회담과정에 세 나라 정부수반들이 그와 관련한 문건에 서명하였다.

다른 대륙나라들과의 협조도 긴밀해지고있다.

지난 4월 26일 이란과 마께도니아가 무역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이보다 앞서 잠비아와 인디아가 두 나라사이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무사증제도를 도입하며 사법 및 기업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량해각서들을 체결하였다.

지역적협조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 지난 1월말에 진행된 제30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는 대륙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아프리카인들의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준 계기로 되였다.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투쟁과 아프리카의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항구적로정이라는 주제밑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대륙나라들에서 부정부패와 빈궁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아프리카의 장래발전을 위한 2063년로정도를 신속히 리행할데 대한 문제, 이를 위해 모든 동맹성원국들이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대륙적인 자유무역지대창설을 다그치는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나라들사이, 지역들사이의 다방면적이고도 긴밀한 협조로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는것은 오늘날 막을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림 원

##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을 비난

싱가포르수상 리 시엔 룽이 1일 한 연설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을 비난하였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승인없이 1 500억US$어치의 중국산제품들에 일방적으로 관세부과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이러한 처사가 다무적인 기구제도에 해를 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세계의 안정과 안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로 하여 싱가포르와 같이 작은 나라들이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무장분쟁으로 피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최근 무장분쟁으로 많은 민간인사상자가 발생하고있다.

2일 한 인권감시단체가 밝힌데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되는 테로와 무장분쟁의 후과로 4월에만도 188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306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기간 이라크에서도 테로공격으로 64명의 사망자와 120여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마흐무드 아빠스 팔레스티나대통령으로 재선

팔레스티나에서 마흐무드 아빠스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3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흐시에서 진행된 팔레스티나국민리사회 제23차 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였다.

# 《재판관》행세를 하는 인권유린자

얼마전 미국이 《2017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시비질하였다.

하다면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2017년 나라별인권보고서》는 자격없는자의 날조품,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청해나선자의 오만성의 산물이라고 규탄배격해나섰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해마다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며 이러쿵저러쿵하고있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대다수 나라들은 커다란 반감을 가지고있다, 올해 보고서의 중국관련 부분들은 여전히 사실과 맞지 않고 편견으로 가득차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발전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면박을 주었다.

중국국무원은 《2017년 미국의 인권기록》과 《2017년 미국의 인권침해사건록》의 발표로 미국에 대응해나섰다. 약 1만자에 달하는 인권기록은 엄중히 침해당하는 미국민의 권리, 사회의 분렬을 격화시키는 계통적인 인종차별, 엄중한 폐단이 존재하는 미국식민주주의,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국권, 인권을 계속 란폭하게 침해하고있는 실태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까밝혔다.

필리핀외무상은 성명을 발표하여 마약반대투쟁 등을 걸고들며 자기 나라에 대해 시비질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전면배격하였다. 자기 나라는 주권국가이며 민주주의는 필리핀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합법적으로 선거된 정부가 주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마약범죄를 완전히 근절하여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외무성도 성명에서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의 인권상황을 악의에 차서 헐뜯은것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여 인위적으로 조작한 비렬한 행위라고 성토하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운운하기 전에 제집안의 한심한 인권상황부터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것이라는것이 성명의 골자이다.

베네수엘라외무상도 미국이 발표한 《인권보고서》를 주권국가들에서 감행하는 정권교체모략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침략적인 선전공세로 락인하였다.

미국이 해마다 늘어놓는 《인권》타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곳곳에서 랭대만 받고있다.

미국은 《인권재판관》행세를 할 지위에 있지 않다. 어느 나라도 미국이 《인권재판관》노릇을 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느 국제기구도 미국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적이 없다.

자국내의 인권문제로 하여 미국은 더욱 그럴 처지가 못된다.

미국에서 절대다수를 이루는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이 사회적존재로서 향유해야 할 중요한 권리인 정치적권리를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미국에서의 선거는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행사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순수 지배층의 권력재분할, 리익재분배과정일뿐이다.

어린이, 녀성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행위가 그 어느 자본주의나라에 비할바없이 성행하고있는 곳도 미국이다. 녀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데 대한 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있으며 어린이들을 보호할데 대한 국제적의무를 규제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고있는 사실을 놓고서도 미국이 념불외우듯 하는 《녀성평등》, 《아동인권》이 얼마나 위선적인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생명권은 인간의 권리가운데서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인간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말살하는 총기류범죄가 전통문화로 굳어져있다. 미국이 총기류범죄로 시작되고 총기류범죄로 끝을 맺은 피로 얼룩진 한해였다고 자인한 2016년보다 지난해가 더 참혹한 총기류범죄의 해로 기록된것도 그에 기인된다. 학생들이 자체방위를 위한 총기류를 필수소지품으로 휴대하고 등교하고있는 형편이다.

인종차별만행도 항시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지난 3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경찰이 무방비상태의 흑인을 총으로 쏘아죽여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란무장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았다.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중동에서 사상최대의 피난민문제를 산생시킨것도 미국이다.

최근 미국의 한 정책전문가는 미행정부가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한것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헐뜯어 자국에서 악화되고있는 인권실태를 가리우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미국내의 인권침해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까밝혔다. 특히 그는 성별과 문화적배경, 정견의 차이에 따르는 편견과 차별행위가 성행하고 종교적자유가 란폭하게 침해당하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나라별인권보고서》에 미국의 한심한 인권상황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남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걸고들기 전에 자국의 인권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본사기자 리 효 진

ㄱ-81072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탁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